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20)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로 그치는 사건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8-29)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다 부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 곧 영생의 부활을 하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나 악행은 무엇을 뜻하는가? 인간은 아무리 선을 행하여도 그것은 인간의 시각에서 말하는 선행일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악이기 때문이다(롬 14:23). 선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으신데, 예수님이 그 선한 한 분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행인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행한 그 어떤 자선 사업이나 선행은 다 악이고 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 곧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생명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벌,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고통과 저주와 형벌을 받기 위해 부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마 25:26)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이다. 단순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복음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 45문이 잘 답변해주고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셔서 그가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케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라고 하였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유익은 간단히 말하면 칭의(우리를 의롭게 하심)의 선물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 4:25)고 하였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고 말한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정적 선언이다. 죄의 형벌은 이미 예수님께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다 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했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부정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았다. 긍정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참가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보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부활한 자들이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 2:1). 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엡 2:5)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를 믿는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롬

6:11)라고 말씀하신다. 사실과 진리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다.

이같은 칭의의 선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롬 5:1). 우리는 단지 죄 용서함만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와 친구가 되어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이다.

둘째로, 칭의의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존전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칭의의 유익이고 기쁜 소식, 복음이다!